

순정이

연중 제19주일

제 1 독서 : 지혜 18,6-9

제 2 독서 : 히브 11,1-2,8-19

복 음 : 루가 12,32-48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루가 12,40).

강론

“항상 준비하고 살자”

김용태 신부 / 수류 천주교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종이라고 부르신다. 하느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돌아오심을 기다리며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다.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의 경우는 두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결혼이나 졸업식 각종 행사모임 같은 정해진 날과 시간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나, 둘째는 죽음과 출산 그리고 불의의 교통사고, 가뭄과 홍수 같은 천재이변 등의 경우이다. 첫번째의 경우는 알고 있는 것이기에 기다리며 준비를 한다. 그러나 두번째의 경우는 신앙이 있으면 그때를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잘 산 분들을 성서에서 볼 수 있다.

오늘 제2독서에는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신앙이라고 말한다. 하느님의 정확한 시간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나 충직한 종으로 산 성인들을 생각해보자.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무수하게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다음 그에게 그의 외아들 이사악을 제물로 봉헌하리라고 명하셨다. 모세는 장장 40년 동안이나 사막생활을 했다. 그동안 그는 하느님의 시간표가 몹시 궁금했을 것이다. 성모님은 예수의 고난을 좀더 미리 알지 못한 것을 매우 애석해 하셨을 것이다. 참으로 하느님의 시간표를 알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생활을 할 때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성서 안에서 우리는 본다.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과 육신생활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하느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잘 관리함으로써 언제인지 모르게 오실 주인께 섬 바질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며 생활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자신의 부귀영화와 명성과 권좌에 있으면서의 생활이 자기 학식, 기술, 직업에서 오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법을 솔선수범해야 할 높은 자는 범법하면서 국민에게 법 준수를 강요하는 모순을 본다.

이런 일 저런 일이 뒤엎혀 무질서가 무질서를 낳는 현실과 책임자가 무책임자처럼 구는 현실을 똑바로 보면서 주인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충직한 종과 같은 심정으로 그분의 부르심을 받는 날을 기다리며 항상 준비하고 날자.

소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남북합의서 발표 이후 잘 풀려가는 듯했던 남북관계가 비핵화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상호사찰과 이인모 노인의 북송문제로 경색국면에 접어들었다가 느닷없는 북한의 김 모 부총리의 서울 방문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는 느낌을 주고 있다.

북한의 경제정책의 실력자인 김 부총리는 지난번의 방문기간중 남북한 경제교류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남한의 고위층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고 부산과 경인지역의 산업 및 유통시설들을 돌아보고 갔다.

또 그에 대한 답방으로 남한측에서도 부총리가 머지않아 평양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상호 교환 방문이 당장 실질적인 경제교류에 어떤 성과를 낳으리라고 기대하기는 빠른 감이 없지 않으나 남북의 관계자들이 서로 오가며 보다 분단 현실을 타개하려고 노력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7·4 남북공동성명 때 금방 통일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가 이내 집권층의 체제 수호를 위한 속임수였음이 드러나 실망했던 경험을 가진 이래 이제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 당국자들의 교류와 접촉에 큰 기대를 갖지 못해온 다수 국민에게 이번 북한 부총리급의 서울 방문도 큰 관심거리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핵문제 등과 맞물려 무산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했던 8·15 노부모 교환 방문이라도 제대로 성사된다면 무언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광복절에 문규현 신부님 등 방북인사를 석방한다면 그같은 느낌은 더욱 커질터이고. [진]

순정이 산책



축! 꾸르실로 수료자 59명 탄생

“너는 그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 (창세 4, 1-8)

창세기 4장 전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승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카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방황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는 솔로몬왕 시절에 왕궁 서기관들이 야훼스트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이 이야기 안에는 이해가 안가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왜 하느님은 편파적으로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이면서 카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는가? 하와가 낳은 아들이 카인과 아벨뿐이었고 카인이 아벨을 죽인 후 이 세상엔 세 사람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카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나중에 카인이 늦에 정착하여 결혼할 여자를 찾을 수 있게 되었는가?

창세기의 저자는 독립된 전승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이야기를 빠른 속도로 진행시켜 간다. 저자는 사람들 사이의 폭력이라는 보다 큰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폭력의 과정과 결과는 무엇인가? 하느님은 이 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하시는가? 이런 보다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카인’이란 말은 고대 아람어의 ‘얻다’라는 동사와 발음이 같아서 하느님께서서 점지해주신 아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아벨’은 ‘숨’, ‘허후’라는 단어와 발음이 같은 걸 보면 그의 짧았던 생애를 암시하는 것 같다.

어떻든 제사를 드리는데 카인은 곡식을, 아벨은 만배의 기름기를 따로따로 바친다. 여기서 우리는 한 하느님 앞에서 그분의 호의를 더 많이 차지하겠다는 불안한 경쟁의식을 엿볼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카인의 제물은 거절하신다. 이 경쟁의식은 카인을 질투와 분노의 화신으로 만든다. 저자는 하느님이 왜 형 카인의 제물을 거절하셨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 뒤엔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우월한 가나안 농경민들에 대한 열등의식에서 목축업을 하던 자기네 조상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생으로서 형에게 돌아갈 왕권을 차지하게 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카인은 하느님께서 자기 제물을 거절하신 것을 알고 몹시 화를 낸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느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카인이 아벨을 살해한 장면

제물의 거절이 곧 카인의 배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느님이 하나를 선택했다 해서 다른 하나를 버리셨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느님께서서는 필요에 의해 한 쪽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한쪽에 대해서도 충분히 선의를 보여주신다. 하느님은 카인에게 화를 내는 경위를 물으시고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는 말씀으로 그의 착한 마음에 호소하신다. 그리고 카인에게 폭력이라는 궁극적인 악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 한다고 경고하신다.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니 너는 그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는 말씀은 죄를 사나운 짐승으로 보고 그것에 물리지 않도록 길들여야 한다는 충고이다.

창세기 저자는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에서 악의 속성은 가만두면 번창해간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악은 애초부터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인간을 파멸의 길로 몰고 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공예가구

아 씨 방

(이리 대리점)
류경선(요한)
전춘자(수산나)
이리시 신동 806-7
☎ 858-0196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전주 오거리 천 보 당

안경, 콘택트렌즈, 금·은·보석·시계
순한성(바오로)·정정님(가타리나)
고사동 오거리
☎ 84-4138, 253-0707

베로니카 플라워 숍

방식꽃꽃이회 전북지회
동·서양란, 웨딩부케, 성전꽃꽃이
국성희(베로니카)
서지숙(파비안나)
☎ 87-8427, 88-8426

5분교리 14

“성령은사와 성령의 열매들”

몇 년 전에 어느 국내 여류작가가 성령기도로 치유의 은혜를 받고서 그 체험을 소개하는 기도모임에 대단한 인파가 몰렸었다. 얼마 후 교회 내의 불미한 일로 그녀의 선편은 잠잠해지고 말았다. 그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생겼다. “○○○는 비둘기 ○ 세례를 받았다.” 전례 분위기며 모든 것이 점잖하기만 한 가톨릭교회 내에서도 1970년대부터 성령세미나가 활발해졌다. 어디까지나 그 목적은 성령 안에서 더욱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돕는데 있다. 목적대로만 한다면 성령기도회는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많은 이들이 자칫 빠져드는 오류로 인해 교회 내에서 성령기도회 자체를 경계하고 염려하는 일이 꼭 유감스럽다. 성령의 사도라고도 하는 성바오로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 밝히 알아들을 수 있다(1고린 12장-14장).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기적, 치유, 예언, 방언 등 이 모든 은사들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동시에 교회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신다. 여러 가지 과연 탐낼 만한 은총의 선물을 열거한 뒤 ‘더 큰 은총의 선물, 가장 좋은 길’을 소개하시는데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이다(1고린 13장). 그 모든 빛나는 은사들을 사랑이 없이 사용한다면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이나 빙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은사를 식별하는 표시이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입니다”(갈라 5.22). 누가 만일 성령은사로 예언하고 치유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교회에 불순종하며 신자들을 분열시킨다면 선을 가장한 악의 세력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세례 때 이미 성령을 받았음을 인식하고 당당하나 겸손되이 기도하면서 “참된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어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필립 1.9).

* 참고 자료: 성령 쇄신을 위한 지침서(책)

교 구 소 식

※ 태아생명 보호운동 비디오 상영: 8월10일(월)·12일(수)·14일(금) 오전10시·오후4시 가톨릭센터 휴게실.

1. 문규현 신부와 구속방복인사를 위한 기도회: 8월10일(월) 오후8시 가톨릭센터.
2.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8월10일(월) 오후7시 교구청 홍보국.
3. 가톨릭 언론인회 모임: 8월10일(월) 오후12시30분.
4.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8월16일 오전6시 가톨릭센터.
5. ‘사랑의 다리’ 웰레미사: 8월10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6. M.E. 주말(40차): 8월14일-16일 천호 피정의 집.
7. 변산해수욕장 야외미사: 8월9일까지 오후4시 노천무대.

※ 축! 영명: 10일(성라우렌시오) 박진량, 범선배, 전대복, 박기준, 이수현 신부님.

※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 상영: 8월17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천사들의 합창

- **성소모임** 전교가르멜수녀회: 8월16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52)74-9262.
성바오로팔수도회(피정): 9월6일, 문의-성바오로 서원 (0652)252-3398.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부부-하느님의 협조자

부부는 인간 생명을 전달할 중대한 임무를 띤 하느님의 직접적 협조자입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뿐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보전사업에 어긋남이 없는 부부생활을 영위합니다.

요십이 (992) 김병오

주임 미사참례하는신자가 40%이고

가톨릭신앙 연구소 조사

교무금 납부하는신자가 50.2% 라고?.

신자의 기본의무도 잘 지키지않는 영터리신자도..

하느님 알려주세요 죽을때는틀림없이 하느님을 찾을것이다

양재·한복·홈패션

노라노 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이)
동부시장은·민정당시원
☎ 86-2715
* 냉난방 완비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대화 아채 효소 전복지사

체질 개선

김영희(실비아)
관동로 전주백화점 옆
☎ 231-4280~1
야간 224-8566

성공적인 삶의 비결

8월10일(월) 및 14일(목)
오후2시 및 7시(각 2회씩)

- 장소: 전주 가톨릭센터 대강당
- 주최: 한국정신과학연구회
- 연사: 김중배(말시아노) 박사
- *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

금은, 보석, 시계, 목주

금보장 금방

장 금 태(프란치스코)
채 현 옥(마 리 아)

전주 남문 옆
☎ (점) 88-4989
(자) 88-4988

고급 적벽돌 생산업체

(환원벽돌, 변색벽돌, 미다시)

제1공장: 성심연와
(0658)546-4174

제2공장: 대건요업
(0658)546-7080

본 사: (0653)51-0488
대표 차 계 철(베드로)

여름방학 대 강좌

중·고

현재 강의중

대일문 **주한샘학원**
전주 74-7424 코야 후문 시청 사이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림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김동주

*** "축" : 라우렌시오신부님의 세례명 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축하식-공식미사 후.
1. 성모승천대축일(8.15)미사시간 안내 : 새벽5시30분, 오후4시, 저녁7시30분. 2. 세실리아회 인준 : 회장-유해란(가타리나) 부회장-진경숙(요안나) 총무-김화자(무시아) 회계-조분남(세노비아) 지휘자-임옥경(바올라) 반주자-문혜정(요안나) 토요일 오전10시 연습, 노래봉사하실 회원들 추가 모집합니다. 3. 모임 : ①장우회(10시미사 후) ②꾸리아(오후2시) ③부녀회(11일 어머니미사 후) ④제축형제회(15일 오후2시) ⑤대전호(16일 10시미사 후) 4. 교부금 미납되신분은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금주청소 : 남노1,2반. 차주청소 : 남노3,4반.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삼인

1. 성모 승천 대축일 : 15일(토). 미사시간-오전10시30분, 오후4시, 저녁7시30분.
 2.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 다음주일.
 3. 회합 : ①요셉회(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후2시) ③청년회(저녁미사 후) ④해설 조 모임(공식미사 후) ⑤안나회(13일 오전10시) ⑥성우회(16일 공식미사 후)
- 금주전례 : 유복규, 독서-황윤주씨 부부. 봉헌-김달식씨 가족.
차주전례 : 오교성, 독서-이상인씨 부부. 봉헌-안철조씨 가족.

*** 상관** 사제관 82-8079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한동욱

- * 축! 영명 : 신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식-공식미사 후.**
1. 어린이 영세 및 첫 영성체 : 15일 공식미사-9:30. 특전미사-후 8시. 2. 성모승천 대축일 : 15일 공식미사 중. 3. 수녀원 신축헌금 : 총신입액-3,738만원, 헌금액-482만원. 4. 청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성가정회 : 18일(화) 저녁미사 후. 6. 장년회 : 22일(토) 저녁미사 후. 7. 성서일기 : I 열왕 1장~11장. 8. 금주청소 : 천사들의 모후Pr. 9. 금주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강덕용, ②김미남. 봉헌-최상욱, 안복성씨 부부. 성모승천 : 해설-김영신, 독서-①이옥동, ②장경자. 봉헌-김단오, 김종석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박명미, 독서-①김봉길, ②최영숙. 봉헌-김한철, 이수복씨 부부.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김명웅

- * 오늘은 연중제19주일!**
1. 회의 : ①프란치스코3회-오늘 오후2시 ②성심회-8월13일(목) 오후2시(성심회원 전원 참석바랍니다) ③성모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모임 : ①전례부-다음주 목요일(8월20일) 오후8시.
 3. 알림 : ①봉성제-8월19일(수) ②본당신부님 하기휴가-8월17일(월)부터 신부님휴가 기간동안 미사없고 말씀의 전례 있음. ③교부금 미수납이 전년도분도 전혀 안내신 분이 많습니니다. 다른 곳에 절약하시고 남부해 주시기바랍니다. 본당살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이점 이해 하시고 봉헌해 주십시오.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오직환

- *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 15일(성모신심에 귀 기울여봅시다)**
◎ 청소봉사 : 1구역 1반, 2반.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삼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영태

1. 금주 : ①자모회(전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2시) ③사목회(후8시)
2. 돈·보스교회 : 12일 오후7시30분.
3. 구역반장모임 : 13일 오전11시.
4. ◎ 첫 영성체자 첫 고백 : 14일 오전 ◎ 어린이 영성체 : 14일 저녁미사 후. ◎ 첫 영성체식 : 15일 공식미사(전10시30분)중.
5. 성모승천대축일미사 : 오전5시30분, 9시, 10시30분, 오후5시30분.
6. 차주 : ①바리의 성모 꾸리아(후2시)
7. 본당 레지오 야외행사 : 8월23일. 장소-지리산.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완규

1. 성모승천 대축일 : 15일. 미사-전5시30분, 전9시, 전10시30분(공식미사) 후3시(어린이미사) 후7시30분, 신자 의무 축일.
2. 성모승천 대축일 국악 성가연습 : 10일~14일 전10시30분.
3. 제41차 M.E부부 주말 강습회 : 14일 이장희부부, 박충수부부.
4. 제대회 웰레미사 : 16일 후3시. 회의-12시. 전입신자 환영.
5. 보미사단 आयुषः : 9일 공식미사 후, 동산면 수만리에서.
6. 성서문서 대장 누락자 : 계시판에 부착, 사무실로 문의바람.
7. 교도수 사목 후원회 आयुषः : 10일 전10시, 센터 집결.
8. 회의 : 자모회-12일 어머니미사 후. 청년회-16일 후8시.
9. 축! 흥배 : 16일 12시, 신랑-전기태(프란치스코) 신부-노숙희(안젤라) 10. 사무장 휴가 : 10일~14일.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규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한병갑

1. 성모회 : 오늘 미사 후.
2. 반모임 : 11일(화)오전-화산2(B). 오후-평화. 저녁-삼정2. 12일(수)오전-금학. 오후-화산2(A), 미사별.
3.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안내 : 오전10시30분.
4. 자모회 : 다음주일 미사 후.
5. 교리교사 여름피정 : 10일(월)~12일(수) 금주전례 : 장병순, 독서·봉헌 : 김영희, 김길순. 차주전례 : 한병갑, 독서·봉헌 : 정경희, 손금규.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석희
사목회장이동섭

- * 연중 제19주일**
1. 모임안내 : ①울뜨레야-야유회 오늘11시 출발. ②성모회-12일(수) 11시. (다른모임의 회원들은 정한시간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15일은 성모승천대축일입니다(이날의 미사는 모든주일과 같이 지내는 대축일입니다) 미사-새벽6시, 09:30, 11:30, 저녁7시
 2. 미사안내 : 금주-애덕의 모후, 인자하시 모후. 차주-사목회일원. (미사안내는 적극적으로 봉사바랍니다)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의도

1. 모임안내 : ①울뜨레야-공식미사 후 ②빈첸시오회-10(월) 오전10시. ③자모, 성모, 성심회-14(금) 10시미사 후.
2. 성모승천대축일 : 주일미사시간과 동일.
3. 요셉회, 한나회 단합대회 : 11(화) 오전9시 모정리. 금주전례 : 해설-박명래, 독서-①김인수, ②문영주 봉헌안내-김영길 부부, 박남철 부부.